

종합·해설

이 판국에 한나라 당권투쟁 논란

지도부 권력투쟁론 제기 쇄신과 강령 반발

홍 대표 '공천혁명·인재영입' 쇄신안 발표

한나라당이 내분으로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애초 지도부 사퇴 후 쇄신을 주장하던 세력에 대해 당권과 축이 '권력투쟁론'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서면서 권력투쟁 양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당까지 우려하고 있다.

△쇄신과의 계속되는 홍 대표 공격 =전날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홍 대표가 8일 "이제는 당내 권력투쟁을 계속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3명 최고위원 동반사퇴를 권력투쟁으로 보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쇄신과는 강령 반발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권력투쟁으로 보는 데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작은 권력에 집착하고 박근혜 전 대표에게 의지해 연명하려는 홍 대표의 시도야말로 권력투쟁이고 쇄신 대상"이라며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권력에 대한 집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내 쇄신과 중에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더라도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드는 데 밀알이 되겠다고 해서 명분 있게 미래를 위해 죽자는 각오로 탈당을 고려하는 의원이 최소한 2명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아저씨 몰라날 분인데, 온갖 추한 모습을 다 보이며 한나라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우리 홍대표"라고 꼬

쇄신의 방향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 비상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탈당도 시사했다. 같은 모임의 김성식 의원은 "(쇄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밖에서라도 중도보수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고 탈당을 경고했다.

반면, 차명진·전여욱·권택기·나성민·신지호·안형환·안효대·조전혁 의원 등 수도권 친이(친이박파)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재창당모임'은 이날 "재창당 후 국민 뜻에 따라 개혁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의 마이웨이=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쇄신안 발표회

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 "현역 의원으로 가지 않을 경우 비상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탈당도 시사했다. 같은 모임의 김성식 의원은 "(쇄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밖에서라도 중도보수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고 탈당을 경고했다.

반면, 차명진·전여욱·권택기·나성민·신지호·안형환·안효대·조전혁 의원 등 수도권 친이(친이박파)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재창당모임'은 이날 "재창당 후 국민 뜻에 따라 개혁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의 마이웨이=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쇄신안 발표회

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 "현역 의원으로 가지 않을 경우 비상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탈당도 시사했다. 같은 모임의 김성식 의원은 "(쇄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밖에서라도 중도보수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고 탈당을 경고했다.

반면, 차명진·전여욱·권택기·나성민·신지호·안형환·안효대·조전혁 의원 등 수도권 친이(친이박파)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재창당모임'은 이날 "재창당 후 국민 뜻에 따라 개혁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의 마이웨이=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쇄신안 발표회

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 "현역 의원으로 가지 않을 경우 비상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탈당도 시사했다. 같은 모임의 김성식 의원은 "(쇄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밖에서라도 중도보수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고 탈당을 경고했다.

반면, 차명진·전여욱·권택기·나성민·신지호·안형환·안효대·조전혁 의원 등 수도권 친이(친이박파)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재창당모임'은 이날 "재창당 후 국민 뜻에 따라 개혁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의 마이웨이=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쇄신안 발표회



한나라당 안형환, 차명진 의원 등이 8일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홍준표 대표의 당쇄신안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성민, 차명진, 안형환, 전여욱, 안효대, 신지호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 '救黨' 장고

차, 총체적 난국 인식... "당분간 외부일정 잡지말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당 쇄신 논란과 디도스(DDoS) 사태의 한 가운데서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최근 활발한 대외활동을 보였던 박 전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계 구성한 의원의 출생기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발표된 지난 2일 이후 공개적인 외부 활동이 뜸 끊긴 셈이다.

주변 인사들은 디도스 사태 후 당내 위기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 전 대표를 관계자는 "박 전 대표가 당분간 외부일정을 잡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도 홍준표 대표 체제에

민주 김근태 고문 임원 치료중

수년째 파킨슨씨병 앓아

'민주화의 대부'로 통하는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이 수년째 파킨슨씨병을 앓아온 데 이어 현재 뇌정맥혈전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상임고문 측은 8일 "김 상임고문이 지난달 29일 뇌정맥혈전증 진단을 받았다"며 "당담 의료진은 현재 빠르게 회복 중이고 예후가 좋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고문은 2007년 대선 즈음에 파킨슨씨병 확진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김 상임고문의 투병은 반독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문 후유증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1965년 대학 입학 후부터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그는 1985년 안기부 남영동 분실로 끌려가 보름 가까이 스스로를 "죽고 싶었다"고 말할 정도로 여덟 차례 전기고문과 두 차례 물고문을 받았다. 김 상임고문은 내년 총선과 대선 앞둔 상황에서 정치 분야의 야권 대통합, 경제 분야의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역할이 남아 있다고 보고 내년 총선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병훈 단장 "내년 총선 출마"

22일 광주 DJ센터서 출생기념회

이병훈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명예퇴직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추진단의 2012년도 주요현안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를 생각하고 있지만, 출마 지역

구와 야권 통합심단 경선 출마 및 무소속 출마 여부는 아직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오는 22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차평동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자신의 저서 '나시'로 향하는 자화' 출생기념회도 열 계획이다.

이 단장은 이 책에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부지 내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문제와 관련해 5·18단체와의 갈등과 해법 과정, 광주 문화수도 선도사업인 문화전당 건립의 전 과정 등을 상세히 수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예산국회 등원 임박

여야 12일 임시국회 소집...예산안 연내처리 합의

여야는 12일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 관련법을 포함한 계류 법안을 처리하는 등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8일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모으고다 배석한 한나라당 황영철·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개척안·미디어법·의안처리절차 개정 등 12·19·22·23 FTA 피해보전대책 관련법과 시급한 민생법안은 연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최우선 처리하고, 정치개혁특별위를 선거구 확정과 정치자금법 개정, 개방형 국민경선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황 원내대변인은 "의사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도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2일 오전 양당 원내수석대표들이 만나 세부일정을 확정짓되 본회의는 일단 12·19·22·23일에 여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회기는 한 달이지만 중요

이정안은 12월 말 이전에 마무리하고 예산안도 22일이나 23일 그 즈음에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등원 여부는 "일단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논의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일정을 요구했지만 FTA 강행처리사과 등 우려가 요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 '디도스' 활용 전략 극대화

민간 공동조사 제안

민주당이 10·26 서울시장 선거일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문제를 여야 간 쟁점 현안의 타겟 카드로 활용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7일 당내 분 속에서 야당과 협의해 국조 또는 특검을 하겠다고 제의하자, 민주당은 "예정된 수순인데 위기 모면은 위한 필수로 제안했다"고 비판을 가하는

상황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쟁점은 한미FTA 재협상 및 사과를 비롯해 미디어법, 조용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정개특위 관련법 등 쟁점 현안의 타겟 카드로 활용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7일 당내 분 속에서 야당과 협의해 국조 또는 특검을 하겠다고 제의하자, 민주당은 "예정된 수순인데 위기 모면은 위한 필수로 제안했다"고 비판을 가하는

김대식씨 출판기념회... 부산 영도 출마

'MB맨'으로 꼽히는 김대식 전(前)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저서 '연단 한 장'의 출판기념회를 여는 자리였다.

김 전 부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가장 밑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이

확실히 뿌듯"이라며 "승승장구하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외에도 한나라당 이재오·안경률·진수희·권택기·이근현·장재원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친이(친이박파)계 인사도 포화해 각계에서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비고
2011타경 11062	2	동소 709 575㎡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710 988㎡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4,532,700	4,532,700	일괄매각, 인접토지외지적경계가분분영, 휴경지상대
			2011타경 11123	1	황평군 다산면 팔봉리 83-2 741㎡	답	6,150,300
2011타경 11345	2	동소 919 1369㎡	동소 1027-1 1283㎡	전	7,255,700	7,255,700	현황은목선,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027-2 1933㎡	답	27,722,600	27,722,6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 11789	1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827-7 1917㎡ [매각외비닐하우스소재함]	임야	44,091,000
2011타경 11979	2	동소 834-8 2248㎡ [현황은전임대지, 매각외비닐하우스소재함]	동소 834-8 2248㎡ [현황은전임대지, 매각외비닐하우스소재함]	전	51,704,000	51,70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외비닐하우스소재함
			2011타경 11451	1	목포시 상동 1125-8 376.9㎡	대	1,732,691,455
2011타경 11451	1	동소 1125-8 지하1층 보일러실 84.925㎡ 1층 소매점및주차장 300.125㎡ 2층 269.865㎡ 3층 269.865㎡ 4층 269.865㎡ [2-4층안마시술소] 5층 여관 269.865㎡ 6층 주택 138.525㎡	동소 1125-8 지하1층 보일러실 84.925㎡	대	1,732,691,455	1,732,691,455	일괄매각
			2011타경 11369	1	목포시 상동 2가 1-13 79.3㎡	대	46,824,160

●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